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 ‘25년도 상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 테크평가 : (대형리그) 1위 **기업은행**, 2위 **농협은행**
(소형리그) 1위 **부산은행**, 2위 **경남은행**
- 품질심사평가 : (우수등급) **한국기술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사)
기업·농협·부산·아이엠(시중·지방은행)

◆ 기술금융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원회는 '25.9.25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5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하였다.

1. 테크평가 (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 및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 테크평가 개요 >

- (내용) 반기별로 은행권의 ①기술금융 공급실적 및 ②지원역량 등을 평가
- (평가대상) 대형리그(6개은행) / 소형리그(8개은행) / 기타리그(3개은행)로 구분
- (평가지표) 정량지표(공급규모 등, 85점) 및 정성지표(인력·조직 등 지원역량, 15점)
- (평가체계) 정량평가(금감원), 정성평가(신정원) → 금융연 검증 → 테크평가위원회 의결
- (결과활용) 평가결과를 신·기보 출연금 가감률에 차등 적용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기업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를 차지하였고, 소형리그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은행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공급 노력에 힘입어 기술금융 잔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금융 금리우대를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 기술금융 잔액(년도, 조원) : ('22) 326.0 → ('23) 304.5 → ('24) 302.8 → ('25上) 307.9
 기술금융 우대금리(신규·대환) : 은행 평균 0.29%p, 일반중기대출 대비 0.19%p 우대
 (기술금융 4.23% vs 일반중기 4.42%)

< 그간의 테크평가 결과 추이 >

구분		20.下	21.上	21.下	22.上	22.下	23.上	23.下, 24.上	'24下	25.上
대 형	1위	기업	기업	하나	농협	기업	기업	평가 없음*	기업	기업
	2위	하나	하나	기업	하나	농협	하나		우리	농협
소 형	1위	경남	경남	광주	부산	부산	대구		부산	부산
	2위	부산	부산	부산	광주	경남	경남		경남	경남

*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23년 하반기 및 '24년 상반기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2. 품질심사평가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평가)

기술신용평가서 품질 평가를 위해 반기별로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 은행에서 작성한 평가서의 품질을 평가하고 있다.

< 품질심사평가 개요 >

- (내용) 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체계 통합 점검
- (평가대상) TCB社 6개 및 자체평가은행 8개의 기술신용평가 품질 심사
- (평가지표) 품질요건, 내부 품질관리 활동 및 평가서 품질 등
- (평가체계) 교수·연구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품질심사평가 결과 기술신용평가사 중에서는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한 자체평가은행에서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으로 평가서 작성이 충실히 이뤄져 평가서 품질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 평가 대비 3개 늘었고,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

※ 그간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추이

- ('22.下결과) TCB社 : 보통3, 미흡3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2, 미흡1
- ('23.上결과) TCB社 : 보통5, 미흡1 / 자체평가은행 : 우수6, 보통2, 미흡1
- ('24.下결과) TCB社 : 우수1, 양호4, 보통1 / 자체평가은행 : 우수1, 양호6, 보통1
- ('25.上결과) TCB社 : 우수1, 양호5 / 자체평가은행 : 우수4, 양호4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시중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정책과제로 추진중이며(9.19일 발표), 그 일환으로 기술 금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4.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분석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보다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2-2100-2865)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70)
		담당자	팀 장 박계주 (02-3145-8400)
<공동>	신용정보원 기술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전필수 (02-3705-5938)
		담당자	팀 장 이득희 (02-3705-5950)
		담당자	팀 장 엄재철 (02-3705-5687)
		담당자	팀 장 오동찬 (02-3705-5959)
<공동>	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책임자	선임연구위원 이대기 (02-3705-6258)
		담당자	연구원 박귀연 (02-3705-6339)